

[종합·해설]

국감 초점

국회는 9일 13개 상임위별로 진행된 나흘째 국정감사에서 촛불시위 탄압 논란, YTN 무더기 징계 사태와 미국발 금융위기 대책 등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문방위의 경우 국감장에 경찰 배치로 파행되는 등 국감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연출됐다.

행안위 여야 '촛불집회 수사' 힘겨루기

◇행정안전위=이날 경찰청 국감에서는 촛불집회 수사를 놓고 여야간에 힘겨루기가 펼쳐졌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경찰은 최근 갑자기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주부(유모차 부대)들을 경찰청으로 소환, 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하는가 하면, 종로경찰서에서는 서울경찰청 지시라며 촛불집회 참가학생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잠잠해지던 촛불집회를 '공안정국 조성'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촛불 문화집회에 참가 이유로 구속수사 중인 평화적 시위 참가자 전원 석방하고 후속수사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인터넷 생중계와 경찰의 국정감사장 배치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동안 최시중(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송도균(왼쪽) 부위원장이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또 "경찰의 촛불집회 강제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조사를 했고, 무려 120여 건의 인권 침해 사례가 인권위에 접수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경찰의 인권침해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염산투척, 기동대원 탈의폭행, 쇄구슬 새총발사, 경찰버스 파손, 경찰헬스 탈취운전, 경찰관 폭행, 돌 투척 등 은 평화시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이다"며 "경찰의 소극적 대처는 불법·폭력시위를 방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날 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최근 YTN 직원의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여야가 충돌했다. 한나라당은 주주총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장이 선출된 만큼 정권의 개입은 어불성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번 해고사태를 군사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언론인 학살'에 비유하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가 드러났다고 공세를 취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대선 캠프에 몸담은 게 큰 잘못이고 혐의가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논리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 사실과 다른 사이비"라며 "문제는 캠프 가담 여부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나이다"라고 구본홍 사장을 두둔했

문방위 YTN 직원 대량 해고사태 충돌
정무위 '키코' 약관 불공정성 시정 촉구
보건복지위 멜라민 파동 식품안전행정 질타

다. 같은 당 허원제 의원은 "대통령의 특보 출신이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 구 사장의 지위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했다. 반면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YTN의 비극적인 상황이 자행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치밀한 방종장악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개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후배를 위해서 사임할 생각은 없느냐"고 구 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장세환 의원은 "YTN의 이번 해고는 5공 정권 이후에 한 가장 많은 언론인 대량해고"라며 "배후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자 청와대대인지 밝혀라"고 정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선정배 의원은 "10월7일 언론인 학살은 언론 계엄령 선포다"며 "청와대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인터넷 생중계 문제와 국감장 경찰 배치를 두고 여

야간 신경전을 벌이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시작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정무위=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들이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환율 폭등으로 위기에 몰린 사태를 집중 추궁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키코는 환율 하락으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제한돼 있지만 환율 상승 시 부담해야 할 위험은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에 불리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하용 의원은 "키코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약관심사는 심사청구된 조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약관 전체의 심사와 홍보물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결론적으로 키코 약관에 불공정성이 상당히 있고 필요하다면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외국에서는 이런 상품을 판매할 때 전문가의 말을 꼭 지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전문가가 대충 설명한다"면서 "감독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타=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올해 도입된 사회복무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보건복지부가족위의 식품·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멜라민 파동으로 드러난 부실한 식품 안전행정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면서 멜라민 유탄기준을 즉각 만들 것을 촉구했다.

또 지식경제부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던 중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지적에 불만을 품은 공단 임원이 최 의원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난동 사태가 발생, 국감이 중단되고 산단공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하는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법원 민원인 만족도 평균 77점

국감브리핑

방세 등 227억8천9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주 의원측 설명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장 높아

여수산단 정전사고 피해액 694억원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여전히 70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내놓은 국정감사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7개 지방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평균 77점으로 집계됐다.

지방법원별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89.71점을 받아 민원인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88.66), 대구서부지원(88.11)등의 순이었다. 광주지법은 80.89점을 받았다.

우 의원은 "민원 만족도가 지난 2005년 69점, 2006년 72점에서 2007년 77점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면서 "민원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을 파악,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여수산단 내 정전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69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달근 의원은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006년~2008년 현재) 산업단지내 정전 사고 현황 자료를 파악한 결과, 여수산단 내 정전사고로 발생한 피해액이 694억원, 울산산단 70억 등 모두 7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수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2006년에만 정전 사고로 500억원의 피해를 냈다. 지난 2006년 4월 GS칼텍스 등 5개사가 정전 사고로 250억원의 피해를 입는데 이어 5월에는 LG석유화학이 가동 중지됐고 GS칼텍스 등 3개사가 정전 사고로 250억원의 피해를 내는 등 정전 사고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또 여수산단은 올해 5월에도 ㈜한화석유화학 등 2개사가 정전 사고로 19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광주 첨단산단 공장 착공 시기 넘겨"

전남 훼손 방지 산림 면적 가장 넓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국가산단 가운데 광주 첨단(1개소), 군산(11개소), 아산(3개소) 등 15개 업체가 공장 착공 시기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한국바스프의 경우 지난 2000년 여수산단 확장단지 내 부지(67만6천634㎡)를 분양받아 일부만 사용한 뒤 나머지 부지(26만4천464㎡)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환경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공단측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었다.

이 업체는 당시 산업자원부와 전남도·여수시로부터 2009년 300만원을 토지매입비를 지원받고 국제·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9일 배포포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석용이나 광입용으로 훼손됐으나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복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산림 면적은 전국적으로 21곳에 107만6천437㎡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방치산림 면적은 4곳 35만1433㎡로 전국 차지단체 중 가장 넓었으며 전국 전체의 32.6%나 됐다. 구체적으로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의 채석장이 올해 10개월째 훼손된채 방치되고 있으며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의 채석장도 1년10개월째,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의 채석장은 1년7개월째 각각 버려져 있다.

박지영·김지욱기자 jkpark@kwangju.co.kr

전문성 떨어지는 부실감사 지적 호풍

국감인물

법사위 우윤근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광양시·사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송곳 같은 국정감사 질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스타로 부상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지난 2000년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50.4%에 불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실 감사를 펼치고 있

다고 질타, 감사원 관계자들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또, 7일 실시된 헌법재판소에 대한

특히, 우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소송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국민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 발의에 나서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국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7.9 급 공무원 합격 강좌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직종별 교세관법검찰출교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호지방술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11월 1일(주·야간반) 모집 6개월:90만원(교재17만포함) *주·야간반+기초(英·國) 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신함. 『無等』은 "꼭" 합격 할수있다는 確信을 드립니다!! 222-4560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3일(주,야)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케미 무료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전착순 60명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자격증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시 험: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